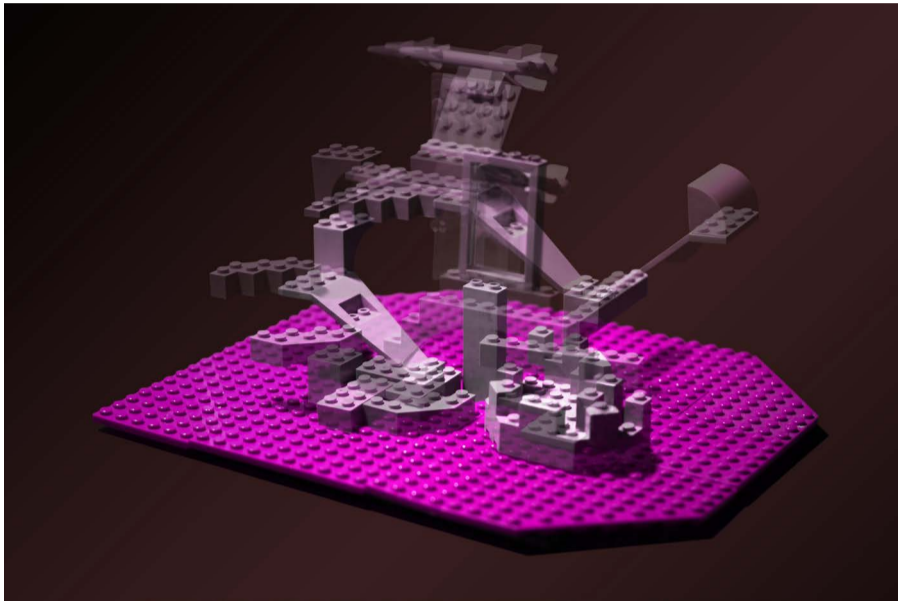


PREVIEW

제 8회 PT & Critic 한황수 개인전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  
Han hwangsu solo exhibition <Nobody Beats Me>

전시기간 | 2016. 6. 11 토 - 7. 10 일  
오프닝 리셉션 | 2016. 6. 11 토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6. 6. 19 일 16시 (패널: 김도균, 이성휘, 이세준)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신진 작가의 전시를 지원하며 시각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형식의 피드백을 진행하는 ‘PT&Critic’의 여덟 번째 프로그램에 한황수 작가를 소개한다. 한황수 작가는 사진을 전공하였으며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원본을 조작하면서 대상을 재구성해 만들어낸 이미지를 제시한다.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제목은 이미지의 시대로 들어선 현대 사회 속에서 주체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작가는 원본과 정해진 법칙을 삭제해 나가며 스스로의 의지로 이들을 새롭게 재현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환경과 현황에 주제적인 톨을 적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환원한 이미지들을 제시하여 객관화 된 시선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작업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

◎ 인터뷰

Q. 현실의 이미지와 사진을 다루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한황수 작가가 재현한 이미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적 풍경을 디지털적인 이미지로 교체하고 이를 다시 재현적 이미지로 돌아가게 하는 재배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재현적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전통적인 사진의 대상에 풍경, 인물, 사물 등등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들을 촬영합니다. 하지만 저의 촬영 목적은 사각 프레임에 담길 어떠한 모습에서의 일부분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되어 오려진 부분은 조작이 끝난 후 다시 사각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출력이 됩니다. 사진에는 상황이나 사건을 기록하는 특성이 있다면 저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만들어낸 후 이를 다시 기록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의 출발과 재료들은 항상 현실을 촬영한 사진을 거치며 이를 저의 방식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현실의 순간을 담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촬영 당시 사진가의 생각에 따라 많은 왜곡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왜곡의 극대화를 위한 작업 과정을 촬영 후 작업에서 더욱 확장시키며 이 과정을 인화 단계에 다다를 때까지 지속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진 매체가 주로 사용되다 보니 주변 풍경을 주로 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에 이미지로 사용되는 풍경들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계기가 있는지요?

A. 선택되는 피사체는 매우 평범하고 일반적입니다. 즉 표준화된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피사체를 선택합니다. 주로 오래 쳐다보지 않는, 명확한 역할이 있는 기능적 오브제인데 이것이 활용되고 나면 바로 시선이 지나가버리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가의 표지판 같은 것이지요. 조작과 합성 같은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 변화된 이미지는 그 고유의 형태 때문에라도 이름과 기능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도 있고 혹은 변형으로 인한 낯선 느낌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색이나 모양과는 다르지만 조금 더 보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인식의 과정에서 오는 시간차 혹은 개인차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관객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국 알아차리게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Q3. 작업에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등장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작업이었나요?

A.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저의 작업 스타일과 관련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주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입장에서 나와 다른 주제적 대상이 존재할 경우에 한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없고 무심한 성격의 물체나 풍경이 저에게 일종의 소스입니다.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컴퓨터 상에서 만지작거리죠. 그것들이 나타내는 색이나 모양새가 곧 이미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소스인 인물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인물을 소재로 한 작업이 있는데 <Bfb> 라는 SNS 상의 여자들의 셀프 사진을 합성해 새로운 인물을 만들고 만들어진 인물 사진의 형태를 다시 익명의 SNS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업로드되어 눈길을 끌던 수많은 아름다운 외모의 여인들이 정작 제 주위나 길에서는 본적이 없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 가상의 인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물을 표현하였다 하기에 인물이 아닌 무엇을 가지고 만드는 작업들처럼 <Bfb>의 가상인물 또한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 소스에 불과합니다.

임윤경 개인전  
Lim Yoonkyung solo exhibition

전시기간 | 2016. 8. 20 토 - 9. 11 일  
오프닝 리셉션 | 2016. 8. 20 토 18시  
아티스트 토크 | 추후공지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 구조의 그물망을 다양한 매체와 방법론으로써 제시해 온 임윤경 작가를 소개한다. 영상/퍼포먼스를 통하여 일상의 대화와 인터랙티브를 끌어내어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의 소통과 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며, 관객 스스로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위치를 인지하게 하는 형식을 경험하게 된다.

◎ 인터뷰

Q. 작품 <Q&A>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로 고용주, 고용인인 가정부, 어머니와 딸 이런 네 가지 역할로 나뉘고 있는데, 작가는 이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화’ 라는 요소를 이 작품 전체를 구현하는데 어떤 식으로 다루고 (혹은 사용하고) 있는지요?

A. <Q&A>작업은 고용관계 또는 모녀관계에 있는 참여자간의 다양한 대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를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작업의 참여자들은 한 가정집의 과거 가정부(류계순) 그리고 그녀의 고용주였던 어머니(최인옥)와 그녀의 딸(임윤경), 또 다른 가정집에 고용된 가정부(Sheila)와 그 가정부의 딸(Kaycee Saludo)입니다. 이 작업의 대화에서 존재하는 여러 차원의 거리(언어의 장벽, 문화와 역할의 차이 등)가 대화에 장벽이 된다고 보다는 오히려 이를 통해 참여자들 사이의 새로운 교차 지점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본인과 작업 참여자들이 서로 간의 다른 입장을 인지하고, 참여자들 사이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 이 대화 설정에서 기대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입장의 차이에 놓인 참여자들 사이의 대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두 화자들의 대화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관객들은 사회적 관계망 안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여지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Q. 위의 작업에서 오가는 대화는 매우 개인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는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적인 대화를 통하여 작가로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A. <Q&A>작업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작업에서 이뤄지는 응답이 단지 사적인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여자의 응답은 자동화되고 젠더화된 노동조건과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작가 본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내재된 보편화된 문제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작업의 소재는 이 문제를 관념적으로 다루지 않고 경험적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경험에서 얻어진,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Q. 작품에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관객 참여적 작품에는 어느 정도까지 작가의 개입이 들어가는지요?

A. 제 작업에서 사용되는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관객 참여적 요소는 다양한 문맥적 상황 연출을 만들어 갑니다. 작업에 따라 작가가 개입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데, <Q&A> 작업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타자와의 만남을 재설정한 것입니다. 이 작업에서 저 자신을 디렉터로 설정하기보다는 관객과 참여자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매개자(mediator)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참여자의 응답 방식은 각본을 바탕으로 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참여자 스스로 서로에게 궁금한 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저는 작가이자 참여자로서 그 대화 관계망 안에 존재합니다. 이 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의 의미와 과연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Q.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A. 제 작업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가정부나 딸과 같이 사회적 역할이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문맥을 보여주면서 기존 문화사회적 구조가 자명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회문화구조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저는 창의적이고 상호적인 대화 방식을 생성하는 그 과정이 보다 나은 구조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 REVIEW with PHOTOS |

유영진 개인전 <Hidden Stage>

Yoo Youngjin solo exhibition <Hidden Stage>

2016. 5. 13 금 - 2016. 6. 2 목



유영진 작가의 사진기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감독이 컷사인을 외칠 때까지. 옥상 혹은 창문에서 그의 세 번째 눈이 감는 법은 없었다. 그의 여섯 번째 감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4시간이 지나고서야 촬영은 마감됐다. 내가 공감하는 건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는 그의 집념이다. 그것도 우리 주위의 무엇. 어쩌면 나보다 먼저 태어났고 항상 내가 보면서 인지했지만 관심이 가지 않았던 아이템같은 거 말이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1 | 오프닝 리셉션, 5월 13일      2 | <Never Seen>  
3 | 아티스트 토크, 5월 21일

윤가림 개인전 <세 가지 타입>

Kalim Yoon solo exhibition <Three types>

2016. 4. 15 금 - 2016. 5. 5 목



1 | 베이킹 퍼포먼스 장면  
2 | 아티스트 토크, 4월 23일  
3 | Three types  
\_ cube, prism, cylinder



시각적인 감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자극하는 전시가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오감 중에서도 특히 후각, 음식의 촉각을 자극하는 전시는 흔치 않을 것이다. 출근할 때 항상 계단을 올라오면서 눈으로 작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사무실로 향하였는데, 이번 윤가림 작가의 <세 가지 타입>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장 먼저 후각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계단을 올라갈 때면 빵 굽는 냄새가 폴폴 풍겼고 이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던 나에게 엄청난 유혹이었다. 가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실린더, 큐브, 프리즘의 오브제에 앉아 빵을 뜯어먹고 모형을 만들다보면 이 세 가지 형태를 한 번 더 입으로, 손끝으로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 빵을 먹으며 대화하는 주제는 빵 즉, 작품에 관한 것 시작해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럽게 일상의 주제로 옮겨져 작품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빵빵'한 전시 공간이었다. (글. 이경아 인턴)

## | 헤적 프레스 Float5 심래정 작가의 <고자질하는 심장> 출판 및 스크리닝 행사 |

2016. 6. 4 토 5 - 7pm

스페이스 윌링앤딩에서는 출판사 헤적 프레스의 다섯번째 출판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Float 시리즈는 헤적 프레스가 기획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매년 선정된 작가를 초대해 인쇄물 형식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Float5는 심래정 작가의 <고자질하는 심장> 쇼케이스로 6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출판된 인쇄물은 갤러리에 비치되어 있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 | SHORT-CUT NEWS | 윌링앤딩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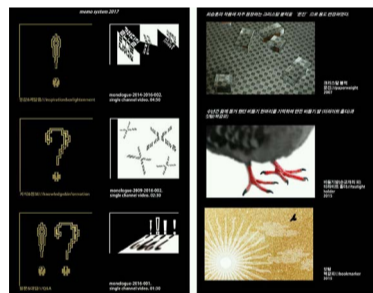


이세준 작가가 베이징 798에 위치한 수하갤러리의 亂城之魅 전시에 6월 3일부터 9일까지 참여했습니다.

오인환 작가가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너무 공적인 너무 사적인: 1989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과 사진>에 참여합니다. 5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김다음 작가가 창동 레지던시 프로젝트팀 <웁선>에 입주해있습니다. 5월 27일, 오픈 스튜디오와 <Floor Plan Archive\_ Floor Plan as Narrative with 이성휘> 큐레이터 토크가 열렸습니다.

추미림 작가가 개인전 <일렁이는 그리드에서 태어난 새로운 형태의 모돌>을 트렁크 갤러리에서 가집니다. 오프닝 7월 6일 5시, 전시는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최승훈 작가는 작은갤러리에서 '성북 예술동'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는 <생각가게>에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참여했습니다.



홍승혜 작가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장욱진의 'simple' 정신을 확대하고 재해석하는 <simple 2016>에 참여합니다. 전시는 4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윤가림 작가가 한은갤러리 <2016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 시대의 젊은 작가들>에 참여합니다. 6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강석호 작가가 HITE Collection에서 <말 없는 미술 When words fail>을 기획하였습니다. 오프닝은 6월 23일이며 전시는 6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이수경, 박선민 작가도 참여합니다.

진효숙 작가는 소록도 작은미술관과 관련한 사진을 기록하였습니다. 박선민 작가와 함께 사진집을 제작하였고 하반기에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성우 작가가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전 <Hybrid\_새로운 시각>에 작품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보였습니다.



김시연 작가가 Nook gallery에서 2인전을 가집니다. 6월 9일 오프닝. 전시는 7월 9일까지.

## | W&D NEWS |

박윤삼 전 코디네이터는 3년 간 일했던 윌링앤딩을 떠나 영화미술팀으로 새 동지를 옮겼다. 현재는 <군함도> 촬영에 앞서 바쁜 줄·퇴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바쁠수록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라고 말하며 2016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있다.

이신애 전 코디네이터는 오라버니의 결혼식 일정을 따라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 그녀는 저녁식사 만찬이었던 소고기를 우걱우걱 질경질경 맛있게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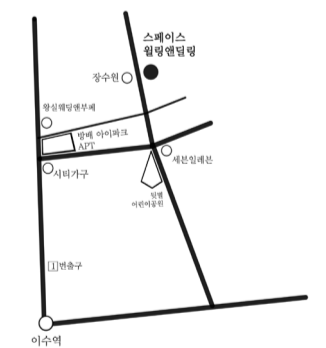
이경아 인턴은 인생 첫 단발과 10년만에 내린 앞머리로 상큼한 변화를 주었다.

경희대 회화과의 얼굴인 조근준 인턴이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이신애의 건배 제의 모습>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스페이스 윌링앤딩  
편집인: 이경아, 한황수  
감수: 김인선  
발행일: 2016년 6월 10일